

# 하논 성당 복원을 위한 건축적 접근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 초 록

1900년6월12일 서귀포시 호근동 하논지역에 설립되어 제주 산남지역 천주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하논본당’은 제주지역에서의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논본당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건축적 형태로 축조되었는지 복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정리와 복원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문헌분석에 초점을 두고 당시 제주에 파견되었던 신부님들의 서한과 우리나라 천주교 건축에 대한 학술문헌을 중심으로 천주교 건축의 건축요소정리와 이를 토대로 하여 하논본당의 전반적인 건축양식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제주의 천주교 건축은 기본적으로 초가를 모태로 하여 약간의 변형, 즉 확실한 구조체로 구성되지 않은 제주초가의 특징상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변형보다는 벽체절거 등 최소한의 공간변형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종교공간을 마련하여 진도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둘째, 초기 천주교 건축의 내부공간 구조와 부지의 조건에 따른 배치를 고려할 때 한쪽 측면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등 제주지역에서의 하논본당에 대한 대략적인 건축양식과 공간구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하논본당의 건축양식과 공간구성을 종합적으로 추론한 기초분석자료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서한자료를 발굴하고 이들 서한의 체계적인 분석과 아울러 종교건축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eyword : 천주교 건축, 하논본당, 복원, 공간구성, 제주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인 1900년6월12일 서귀포시 호근동 하논지역에 설립되어 제주 산남 지역 천주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하논본당’은 제주지역에서의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천주교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 뮈텔(Mutel) 주교는 프랑스 선교사인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1899년4월22일 제주본당(現 중앙성당)을 설립하고 1899년 11월 11일 서귀포 지역에 하논공소를 설립하게 된다. 초대 김원영(아우그스띠노)신부는 1900년 6월12일 서귀포시 호근동에 하논본당을 설립하게 되는데 설립 당시 신자 20명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하논 본당을 복원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로서는 천주교활동의 기반이었던 장소와 상징적인 건축물을 통해 천주교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복원을 통해 역사와 자연생태가 함께 어울리는 ‘성지순례길’로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제주도 천주교 신앙 및 역사문화 콘텐츠 또는 교육자료, 국내외 관광객들의 역사문화 여행을 위한 안내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논본당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건축적 형태로 축조되었는지 복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정리와 복원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약 102년전의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나 관련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복원도면을 추측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하논본당 건립에 대한 문헌은 당시 신부님들의 서한<sup>1)</sup>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서한에는 하논본당 건립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초기 우리나라 천주교 건축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서한에서 기술하고 있는 건축관련 요소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전반적인 건축양식을 추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 3. 우리나라 초기천주교 건축의 특징

천주교가 전래된 1784년 이후 종교건축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건축이 등장하게 된다. 서양에서는 대부분의 종교건축물은 석조 혹은 벽돌조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 종교건축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기존의 한옥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목가구방식으로 건축되었다. 대표적인 유형이 지방에 현존하는 한옥공소(公所)이다<sup>2)</sup>. 일반적으로 공소는 본당 소속 신자집단으로 인정하는 교우촌 혹은 교우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소도시에 건축되었다.

본당의 신부는 봄과 가을에 공소를 방문하여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성사와 미사집전은 공소의 강당(講堂)에서 거행되었고 강당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주택에서 성사를 주었는데 그 집을 공소집이라고도 불렀다<sup>3)</sup>.

일반적으로 공소의 교세가 확장되면 본당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는데 하논공소의 경우는 교세확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초대 김원영(아우그스띠노)신부를 중심으로 한 교구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면 공소건축은 성당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어 그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공소건축은 성당건축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우리나라에서의 공소건축 혹은 성당건축의 변천과정상의 시대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표1).

제1기(1784년~1887년) : 천주교의 전래와 수용, 박해시기

제2기(1887년~1910년) : 공소건축의 태동기(신앙의 자유와 개화기)

제3기(1910년~1953년) : 공소 발전기(일제시대와 격동기)

제4기(1953년~1980년) : 공소의 전성기

제5기(1980년이후~) : 전환기의 공소시기

제1기의 공소건축은 특별히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건축물을 짓기 보다는 양반의 집을 빌려 교리를 가르치거나 신자들이 모여 종교적인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건축관 관련된 특별한 특

1)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제주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 제주교구

2) 박광현, 김태영, 한옥공소의 목구조 방식에 나타난 민간기술자의 현장기법,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10, 제12권 1호 통권36호, p49

3)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p479

4) 김문수, 홍승재, 공소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6, 제16권 제2호, p163

5) 김문수, 홍승재, 공소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6, 제16권 제2호의 자료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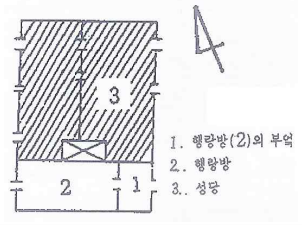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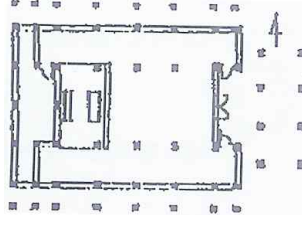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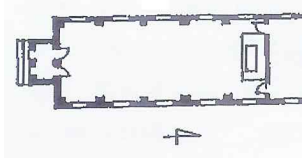
정을 거론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본격적으로 공소를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2기에 들어서 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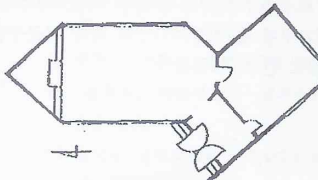
제2기의 공소건축은 대부분이 한옥을 기본모델로 하여 건축한 목구조의 공소건축으로 넓은 공간을 집회공간으로 사용하고 작은 공간을 신부의 개인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시기는 제주지역 남부지구 모태(母胎)성당인 하논본당이 건축된 시기(1900년6월12일)여서 건축방식이나 배치, 공간구조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제3기 공소건축은 거의 대부분 5량구조의 한옥목구조가 많으며 천장은 대들보가 지붕트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닥은 나무널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남녀구분 칸막이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유교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4기 공소건축은 콘크리트조의 공소가 많이 건축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공소건축은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아 공소건축의 평면도 성당건축으로서의 공간구성을 가진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며 시멘트벽돌조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 역시 넓고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우리나라의 공소건축 및 성당건축의 시대별 변천과정의 특징

시대구분	건축구조	배치	평면	사례6)
제1기	-	-	-	-
제2기	한옥목구조	-성당, 사제관, 행랑, 헛간이 마당중심으로 口자형성.	-제단은 남서향배치. -측면에 설치된 3개의 출입구를 통해 진입 -제단 뒷편에 행랑방과 부엌 설치 -중앙에 남녀구분 칸막이 설치	구합리 양촌 공소 
제3기	한옥목구조	-동서측으로 배치	-장방형의 평면구조로 정면으로 진입 -정면5칸, 측면 7칸으로 구성(내부공간은 3칸, 6칸) -제단 주변에 난간 설치 -제단후면과 천정에 목재 아치와 기둥조각	서산동문 상흥리 
제4기	시멘트 벽돌조	-동서측으로 배치	-장방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베이 마다 장방형의 창을 설치 -바닥은 장마루를 설치함 -제단 뒤쪽은 방을 설치 -진입구에 개방적인 포치 설치	신평 읍섬이 
제5기	다양한 재	-동서측으로 배치	-삼각형의 제단	신평리 세류리

	료		-제단 좌우에는 긴 수직 창 설치	
--	---	--	--------------------	---

제5기 공소건축은 보다 실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사용 재료에 있어서도 시멘트벽돌뿐만 아니라 RC조 등을 사용하는 종교건축으로 변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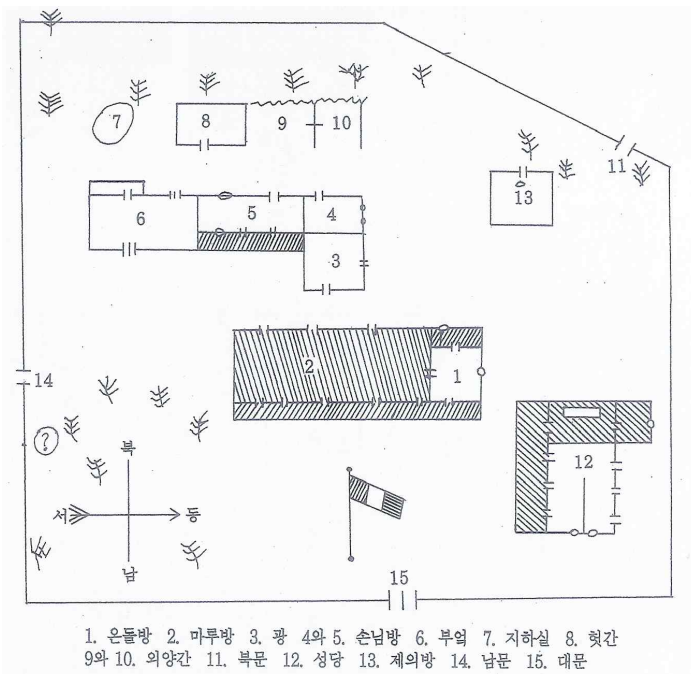


그림1. 뒤테르뜨르 신부덕 약도

한편 뮈텔주교의 일기<sup>7)</sup>에도 성당건축에 대한 귀중한 도면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

1901년 11월28일의 기록에 뒤테르뜨르 신부덕을 둘러본후 그린 약도(그림1)가 있는데 성당의 공간구조는 제단과 예배공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측면에 부속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예배공간은 남녀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 성당의 방향은 장방형의 장축이 남북으로 놓여 제단이 북측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진입은 성당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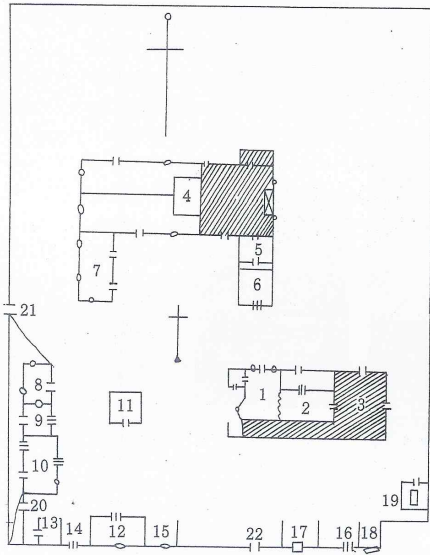
1901년 11월30일 예배를 위해 방문했던 부이수 신부덕을 그림 약도(그림2)을 보면 장방형의 성당건축 장축이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제단 뒤편에 부속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예배공간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은 측면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1905년 12월9일 김 스터왕 신부덕을 방문했을때 그린 성당 평면(그림3)을 보면 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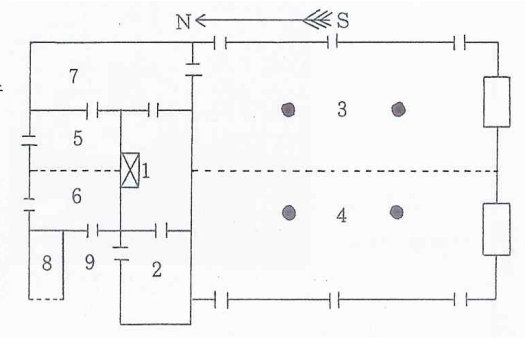
6) 김문수, 홍승재, 공서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6, 제16권 제2호, p165

7) 천주교 명동교회 편, 명동천주교회 200년사 자료집 제5집, 뮈텔주교일기Ⅲ, 한국교회사연구소

형의 성당 장축이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제단 뒷편으로 관련 부속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배공간에 기둥이 있고 남녀공간으로 구분되게 계획된 점등이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성당으로 출입 역시 측면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1과 2. 신부방
- 3. 마루
- 4. 성당
- 5. 제의실
- 6. 광
- 7. 탁자
- 8과 9. 사랑방
- 10. 부엌
- 11. 지하실
- 12. 문간 창고
- 13. 조선 사람용 변소
- 14. 문
- 15. 의양간
- 16. 대문
- 17과 18. 광
- 19. 화장실
- 20과 21. 문
- 22. 문



- 1. 제대와 그 주위 2. 제의방 3. 남자석 4. 여자석
- 5와 6. 신부방 7. 창고 8. 부엌과 공간 9. 통로

그림2. 부이수 신부택 약도

그림3. 김 스테왕 신부택 성당 평면

#### 4. 문헌분석을 통한 하논본당의 건축양식 추론

##### 4-1. 하논본당에 대한 문헌정리

천주교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 뮈텔(Mutel) 주교는 프랑스 선교사인 페네 신부와 김원영(아우그스티노)신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1899년 4월 22일에 제주본당(現 중앙성당)을 설립하고 같은 해인 1899년 11년11일에 서귀포 지역에 ‘하논공소’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초대 김원영(아우그스티노)신부는 다음해인 1900.6.12 서귀포시 호근동 194번지에 하논본당 설립<sup>8)</sup>하게 되는데 설립 당시 신자는 20명이었으나 1901년에는 신자가 137명으로 늘어났고 예비신자는 무려 620명이 되는 등 확장되었다. 이후 제 3대 타케(에밀리오)주임신부는 1902년 6월 17일에 서귀포시 서흥동 204번지에 흥로본당을 이전하게 된다(그림4).

8) 뮈텔문서 1900-74



그림4. 홍로본당의 초가성당 앞에 서있는 타케(한국명: 엄택기)신부님(한라일보 기사자료 인용)

하느본당 건립에 대한 자세한 문헌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건축형태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당시 신부님들의 서한<sup>9)</sup>을 통해 하느본당 건립과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서 건축적 특징을 유추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뫼텔(Mutel) 주교의 서한>

문서번호 : 제주-140

날짜 : 1900년 8월

-호근리 지역의 이른바 하느 남쪽에 교당을 신설하니 쾌락하고 완악한 무리들이 그곳에 빌붙어 성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한갓 사람들을 해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면서 면임(면의 장)들을 억지로 죄목을 꾸며 곤장을 쳐서 옥에 가두고는 사사로이 속전을 받고 시골남녀들을 영을 내려 잡아 가두고 함부로 국문하였습니다.

#### <김원영신부의 서한1>

문서번호 : 제주-6

날짜 : 1900년 9월6일

발신지 : 정의(하느)

-현재 저의 지역에만도 거의 60명내지 70명의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 <김원영신부의 서한2>

문서번호 : 1901-14

날짜 : 1901년 1월28일

발신지 : 하느

-지금 예비자들이 근 400명이 되고 영세자는 50명입니다. 그간 4칸 집과 집 마당까지 주일과 침례 때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9)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제주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 제주교구

### <김원영신부의 서한3>

문서번호 : 1900-75

날짜 : 1901년 6월10일

발신지 : 제주도(대로동)

-내일 라크루 신부님과 같이 정의에 갈 것입니다. 저는 교우 집 하나를 빌려 본당 집을 살 때 까지 거기에 머물게 될것입니다.

### <타케신부의 서한1>

문서번호 : 제주-82

날짜 : 1902년 6월17일

발신지 : 하논

-박가의 집은 겨우 밭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집(즉 하논 본당의 사제관)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논의 집으로 말하자면 허물어 버리기에 딱 좋을만하며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무세신부에게 이집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아무것도 잃어버릴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략)

이 허술한 집 여기저기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바닥'은 땅과 같은 높이여서 위아래로 습기가 차 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지붕은 제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마루'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에는-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그리고 연중 내내 그렇다고 하는데-바람을 쐬수도 없습니다. 반면 방안에서는 여기저기 벽틈을 통해 바람이 들어옵니다. 더구나 그곳으로 뱀과 다른 벌레들이 지나다닙니다. 집은 논에서 10m정도 되는 곳에 있으므로 이 마을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말라리아 열병 때문에 제게 키니네를 달라고 합니다.

### 4-2 하논본당 건립을 위한 건축요소의 검토

앞서 천주교 건축관련 학술내용 및 서한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초기 성당건축의 특징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건축양식): 하논본당은 기존의 제주초가를 개조하여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그 당시 육지부에서 적용되어 왔던 성당건축의 형태를 참고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다만 육지부의 경우 한옥 목구조를 중심으로 신축되었으나 제주의 경우 초가형식을 건축되었음을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타케신부가 1902년 6월 17일에 서귀포시 서흥동 204번지에 이전 신축한 흥로본당의 사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배치) : 본당을 비롯하여 사제관 등 비롯한 부속시설을 설치하였던 육지부 성당과는 달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본적인 건축물은 본당과 사제관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본당배치는 장방형의 장축이 남향 혹은 남서향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사제관은 본당 배치와의 관계상 장축이 동서방향으로 놓여 남향을 취함으로써 기본적으로 L자 형태의 배치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평면구조) : 평면의 구조는 4칸집의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제단은 남향 혹은 남서향으로 배치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측면을 통해 출입했으리라 추측되며 제단 뒷편에

행랑방 혹은 제의실 등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는 유교적인 영향이 작용하여 예배공간의 중앙에 남녀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넷째(제단) : 당시에 조성된 육지부의 본당건축양식을 보면 제단은 난간없이 최소한의 형식으로 제단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바닥은 ’서한의 내용으로 보아 하논본당의 경우 ‘바닥이 땅과 같은 높이여서 위아래로 습기가 차 있다’라는 내용과 ‘마루가 없어서 때문에 비가 올 때 바람을 쉴수도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예배공간의 바닥은 거의 지면에 가깝게 나무널판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지붕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툇마루 역시 설치되지 않고 측면으로 바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5. 하논본당 복원을 위한 도면 검토

당시의 기록들이 많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앞서 하논본당 건립을 위해 관련문헌의 건축적 검토사항을 기초로 하여 하논본당건립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 하논본당 배치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주어진 부지를 효율적 사용과 아울러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획요소중의 하나이다. 하논본당의 경우 정확한 기록은 없어 추측의 한계는 있으나 당시 건축되었던 육지부의 성당배치방식을 보면 특정한 방향을 의식하여 배치되기보다는 부지의 여건에 따라 자유스럽게 배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당과 사제관의 기능을 고려할 때 안거리와 밖거리와 같이 대립적인 배치보다는 부지이고 기존 돌담을 따라 안쪽으로 진입하고 서쪽의 숲을 배경으로 본당, 진입부 부근에 사제관이 배치되는 L자 배치형식으로서 진입방식은 마당을 통해 진입하는 형식(그림5)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남쪽 아래쪽에 배치함으로서 본당과 사제관과는 구별되도록 배치함으로서 종교건축에서 요구되는 엄숙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5. 호근동 194번지 지적도(왼쪽)와 배치계획안(대안2)

#### 5-2. 하논분당 평면계획

당시의 사회여건을 고려한다면 하논분당 건축시 지역의 건축기술과 기술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또한 척박한 하논주변 여건에서 마을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주거양식은 거의 대부분 초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서한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 및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초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제주초가건축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4칸의 분당건축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6, 그림7).

특히 당시 건축된 육지부의 성당건축의 공간구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단변(短邊)의 벽면중앙에 제단이 위치하며 예배공간은 남녀공간으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제단 뒤편은 제의실 및 창고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예배공간의 출입방식은 육지부의 경우 장변(長邊)의 양측벽면을 통해 출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 하논분당의 경우 초가의 평면 및 배치구성상 장변(長邊)의 한쪽측면에 개설된 3-4개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는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예배공간의 바닥은 마루로 구성되며 신발을 벗고 올라 갈수 있도록 출입구 전면에 뒹마루를 두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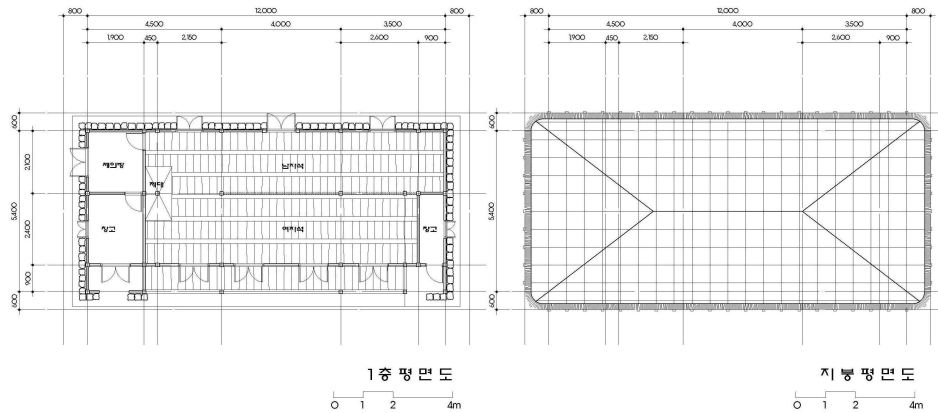


그림6. 하논본당의 평면도 및 지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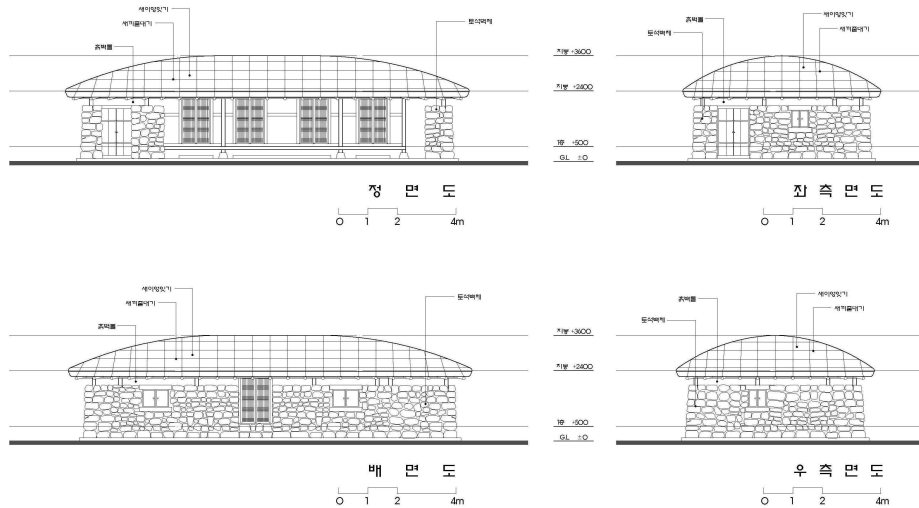


그림7. 하논본당의 입면도

### 5-3. 사제관

사제관의 경우 제주초가의 주거형식을 그대로 수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팡 등은 집무공간 혹은 수납공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8, 그림9).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본당과는 달리 사제관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즉 장방형의 장축이 동서향으로 놓여 기본적으로 남향배치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됨(그림5. 배치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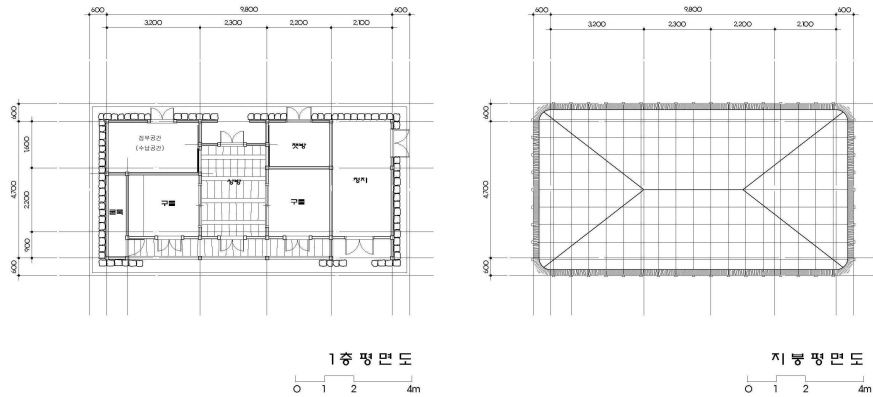


그림8. 사제관 평면도 및 지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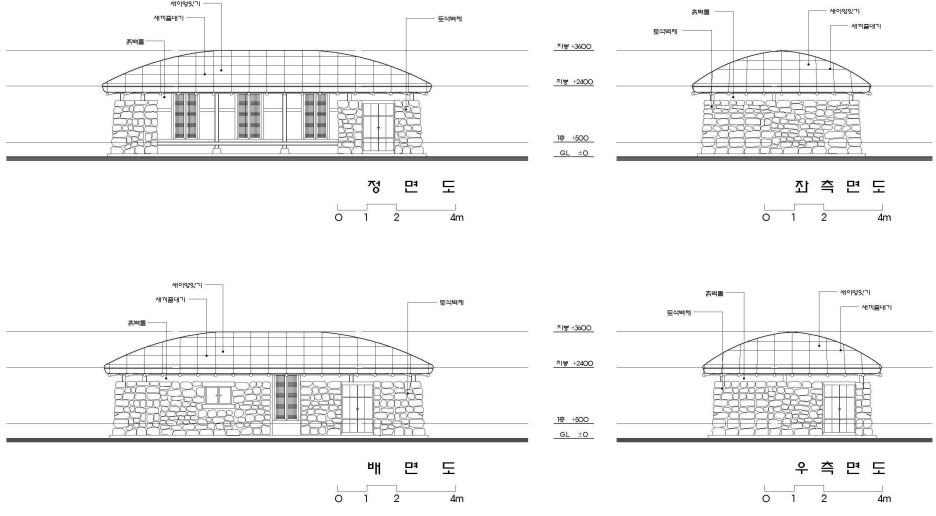


그림9. 사제관의 입면도

6. 결론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건축양식은 기본적으로 한옥을 모태로 하여 종교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는 적절한 종교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에 보다 밀착하여 전도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남부지역 천주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112년전 하논본당을 복원하여 성지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제주의 천주교 건축은 기본적으로 초가를 모태로 하여 약간의 변형, 즉 확실한 구조체로 구성되지 않은 제주초가의 특징상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변형보다는 벽체철거 등 최소한의 공간변형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종교공간을 마련하여 전도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 천주교 건축의 내부공간 구조와 부지의 조건에 따른 배치를 고려할 때 한쪽 측면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등 제주지역에서의 하논본당에 대한 대략적인 건축양식과 공간구성을 추측할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하논본당의 거축양식과 공간 구성을 종합적으로 추론한 기초분석자료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서한자료를 발굴하고 이들 서한의 체계적인 분석과 아울러 종교건축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검증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문수, 홍승재, 공서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6, 제16권 제2호
- 박광현, 김태영, 한옥공소의 목구조 방식에 나타난 민간기술자의 현장기법,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10, 제12권 1호 통권36호
-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제주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
- 천주교 명동교회 편, 명동천주교회 200년사 자료집 제5집, 뫼텔주교일기Ⅲ, 한국교회사연구소
-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